

구례 섬진강변에 문연 헌책방과 북카페



부산 보수동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던 김종훈씨가 구례 섬진강변에 문을 연 '섬진강 책 사랑방'은 서점과 북카페가 어우러진 공간이다.

부산서 헌책방 운영했던 김종훈 씨 '섬진강 책 사랑방' 오픈 20만권 보유 예술분야·한국학 등 전문서적 다채 독서회원 모집...문학·인문학 강의도



부산 국제시장 인근에 자리한 보수동 헌책방 골목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명소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생활과 공부를 위해 책을 사고 팔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으로 피난 수도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수동 헌책방 골목에서 40년 넘게 '대우서점'을 운영해온 김종훈(68)씨가 구례 섬진강변에 북카페가 어우러진 '섬진강 책사랑방(헌책방 대우 since 1978·구례군 구례읍 섬진강로 46)'을 오픈했다.

지리산이 지척이고 섬진강이 흐르며 전라선 열차가 멈추는 구례역 건너편 월암 마을에 등자를 튼 헌책방에는 1t 트럭 30여 대 분량에 해당하는 20만권의 책이 갖춰져 있다.

1978년부터 책이 좋아 보수동 책방골목을 드나들다 책장사를 하게 된 김 씨는 '책 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한다. 책에 대한 지식만큼은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그는 책속에 묻혀 사는 사람이다.

김 씨는 몇년전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방대한 책을 '풀어놓고 나눌' 공간을 모색해왔다. 지금까지

모든 책과 지식을 환원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던 중 자연 속의 헌책방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을 갖게 됐다. 경남 하동 인근을 중심으로 장소를 찾던 그는 올 초 구례에 맞춤형 공간을 찾았다. 구례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지만 남원이 고향이고 순천중·고등학교를 나와 전라도와의 인연이 있었다.

모델로 사용하던 3층 짜리 건물을 발견한 그는 방을 모두 뜯어내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며칠 전 헌책방을 오픈했다. 당초 여름에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지난 8월 홍수로 건물이 침수돼 책 1만권이 물에 잠기는 우려국절을 겪기도 했다.

1층에는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고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북카페 선'을 마련했다. 2과 3층에는 원서와 전문서적을 놓아 지식 창고로 만들었다.

'섬진강 책 사랑방'의 컨셉은 책방 앞 간판에 써진 'OLD & RARE BOOKS WITH CAFE'가 잘 보여준다. 오래됐지만 의미 있는 책,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구하기 어려운 귀한 책을 만나는 공간이자, 편하게 차 한잔 마시며 답소를 나누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대우서점 시절부터 김 씨가 주로 다룬 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서적이다. 각종 대학 교재를 비롯해 미술, 디자인, 건축, 사진 등 예술 관련 분야 서적과 원서, 한국학 관련 도서들이 많다. 시, 소설 등 일반인들이 찾는 도서는 약 30%정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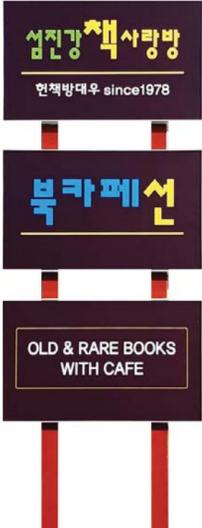
보수동에서 서점을 운영할 때도 서점 단골들과 함께 '대우독서회'를 8년째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 김 씨는 앞으로 책방을 중심으로 독서회를 운영하는 등 소박하게 책 읽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당시 독서회원을 모집해 함께 책을 읽고 문학 강의, 인문학 강의 등도 진행하곤 했다.

새롭게 등지를 튼 '섬진강 책 사랑방' 역시 독서뿐 아니라 인문학 강의나 주민 참여 시낭송, 깊이 있는 미술사 강의 등이 어우러진 '문화 예술 사랑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조금씩 입소문을 듣고 구례로 귀촌한 다양한 사람들이 책방을 찾아오고 있어 이들과 함께 프로그램도 운영해 볼 생각이다.

"섬진강변 구례로 귀촌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지식을 풀어놓을 수 있는 장소로 운영해 보고 싶어요. 또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그 분들 역시 각자의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 함께 지식을 나누면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연말까지는 연중무휴. 문의 061-782-3820.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재단·5·18기록관 공동, 20일 '이스탄불에서 광주까지' 진행

(재)광주비엔날레 GB토크 일환으로 제13회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인류 공동체 연대를 모색하는 공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재단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공동주최로 '이스탄불에서 광주까지: 붓기에서 '아카이브할 수 없는 것'을 아카이브하기'를 20일 오후 4시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권도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기

록연구사, 이스탄불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제이노 페린루, 사회학자 베귀 외즈덴 프라트가 참여한다.

권도균은 '5·18기록물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고, 세계에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발표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소개하며 제이노 페린루는 '미래의 전략을 위해 아

카이브하기'를 주제로 최근 터키에서 일어난 붓기와 관련해 아카이브에서 재현할 수 없는 것을 논한다. 또 베귀 외즈덴 프라트는 '드론과 거리: 타흐리르 광장과 게이 공원 점거의 도상적 이미지들' 발표를 통해 군중이 동시에 정치에 어떻게 재등장하는지 논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터키현대미술후원협회가 지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창 임방울 선생을 기리다 최고 국악 명인을 발굴하다

20~23일 광주향교 등 9개 공연장...23일 본선 SBS 생중계

1930년 서울에서 열린 전국 명창대회에 한 청년이 등장한다. 작은 체구의 이 남자가 '쑈대머리' 한 소절을 부르자 청중들은 낮고 소리에 빨려든다. 이후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쑈대머리'가 담긴 음반은 100만장이 넘게 팔렸고, 그의 명성은 한반도 뿐 아니라 일본, 만주에까지 알려졌다. 나라 잃은 백성의 설움과 절망을 노래한 그의 한맺힌 목소리는 당대 민족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광주가 낳은 국창 임방울 선생을 기리는 임방울 음악제는 올해도 계속된다.

'제28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가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광주향교 유림회관, 5·18기념문화센터,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광주 지역 공연장 9곳에서 펼쳐진다.

이번 국악제는 당초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행사 첫 날인 20일 오전 광주향교에서는 '임방울 판소리 장기자랑 대회'가 열린다. 만 19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50여 명의 입상자를 선발해 금·동·은·인기·장려상과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창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혼을 기리고 국악제의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국창 임방울 예술혼 모시기' 행사가 열린다. 임방울 선생 추모시낭송, 헌화분향, 선생을 추모하는 판소리 훈타이 춤 등 임방울 선생을 추모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6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는 '전야제 축하공연'이 KBC광주방송 생중계로 이뤄진다. 전야제는 국악인 남상일의 사회로 진행되며,



임방울

풍물천지 이시영(제26회 농악일반부 대상), 김찬미명창(제13회 대통령상 수상), 김미진 명창(제14회 최우수상 수상), 서정민 명창(제22회 대통령상 수상), 프로젝트 앙상블 등의 무대로 꾸며진다. 이날 무대에는 탤런트 양금석이 특별출연한다.

본선대회는 23일 낮 12시30분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국내 최고의 국악 명인을 발굴하는 판소리 명창부, 가악, 무용부문 경연이 진행되며, 판소리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각 부문별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의 수상자가 결정되는 시간이다. 본선 무대는 SBS TV로 전국 생중계된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상금 4000만원, 부상으로 1000만원 상당의 순금 임방울상(像) 트로피가 주어진다.

명창부 최우수상(조선일보 방일영상)에는 상금 2000만원, 농악일반부 대상(국회의장상)에는 상금 1000만원, 농악일반부 최우수상(광주시장상)에는 상금 700만원이 전달된다. 판소리·가악·무용·가야금명창·시조·퓨전국악 일반부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각 400만원 등 총 1억98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국내 국악 경연대회 수상 규모 중 최고 수준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